

예비 고교생 학점제 미리 알아본다

전북교육청, 중3대상 찾아가는 교육과정 설명회... 12월 18일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중학교로 찾아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자율신청을 받아 12월 18일까지 미리 알아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학생들이 미래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예비 고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전 진로학업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학교 생활 동안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및 자기이해 활동의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중학교 3학년으로 참여인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운영되고,

학교당 2그룹까지 지원한다. 중학교 3학년의 참여를 우선하며, 3학년 학생수가 적은 경우 1,2학년으로 확대해 27개 학교 37개 그룹 총 812명이 참여한다. 설명회는 진로와 직업 교과 시간,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 진로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미래사회와 나의 미래 ▲고교학점제, 무엇이 달라지나 ▲

내가 선택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 고교학점제 웹페이지로 관심과목 알아보기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 ▲질의 응답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 고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진로학업설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진로탐색과 자기 이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난 23일까지 호남·제주권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 워크숍을 진행했다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중 10일간 '왕의지침'에서 하루 5시간씩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무실무사 28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핵심인재 평생교육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 모바일을 활용한 업무역량, 정리를 통한 실내공간 변화에 대한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해 학교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동료 간 만남을 통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업무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물론 자신감을 높이고자 함이다. 조성규 과장(학교교육과)은 "학교의 일원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난 23일 전북대 치과대학 79학번인 김대범 원장이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후배 향한 대선배의 따뜻한 마음

전북대 치대 1기 김대범 치과원장, 모교에 발전기금

전북대 치과대학(학장 김재곤)에 후배들을 향한 대선배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치과대학 79학번인 김대범 원장이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 기금은 치대에 지정돼 단과대학 발전과 학생 장학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전북대 치대 1기로 졸업한 김 원장은 전북대에서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주에서 치과외원을 개원해 지역사회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5월 치과외사 국가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습실 등을 갖춘 3호관을 개관한 이후 최근 본관과 2호관까지 리모델링하면서 학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교 후배들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기금을 내놓았다. 한편 전북대 치대는 지난 21일 열린 본관과 2호관 완공 기념식에서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김동원 총장이 김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대범 원장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전북대 치과대학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매진하는 후배들을 위해 선배로서 평소 가졌던 마음을 실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해 훌륭한 치과의사로 성장하길 바라고, 특히 모교가 국내 최고 치과외사 양성의 요람이라는 명성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역사회 경제문제 해법찾기 전주대, 신입생 진로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전북대 LINC+사업단, 호남·제주권 사회적경제협의회 워크숍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은 호남·제주권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까지 전북대에서 열린 워크숍은 지역사회 경제 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 워크숍에서는 2021년도에 있을 '제1회 사회적경제 대학 컨퍼런스' 취지 소개 및 지역 공공기관들과의 협약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전북대 김영선 교수와 타 대학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환경에서 대학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고영호 LINC+사업단장은 "사회적경제 3법 통과를 계기로 민·학·관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와 정부, 민간 등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확산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전북대와 전남대, 전주대, 제주대, 호남대 등 5개 대학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홍성덕)와 진로개발센터는 신입생 진로 상담 및 또래 집단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과 진로설정을 돕고 있다.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450여 명이 참여했으며, 11월까지 760명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단과대학 학사지도사(CA)와 협업해 학과별 신입생을 4~5명씩 소규모로 구성해 대학 생활 안내 및 진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집단 상담을 통해 진로·성격 유형을 탐색하고 학과별 진로를 설계한 '커리어로드맵'을 통해 진로설정에 필요한 교과목, 비교과, 자격증 등을 안내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못해 대학 생활과 진로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내용을 교육 받았다"며, "나의 성격·진로 유형을 우리 과의 진로 분야와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어떤 교과목을 신청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하는지 설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성덕 센터장은 "신입생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 집단 상담 등을 실시해 대학 생활 적응과 학과별 진로 분야를 탐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 분야를 조기에 탐색해 체계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이리공고-해병대, 학·군 교류협정 체결

이리공업고등학교는 최근 해병대와 학·군 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으로 이리공업고등학교는 군 부사관학교와는 다르게 여타의 교육과정 수료없이 부사관 동아리만을 운영해 기초훈련 후 즉시 부사관에 임용할 수 있게 됐다. 해병대에서는 이리공고의 부사관 동아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이리공고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가장 빠른 길을 마련했다. 이리공고 부사관 동아리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필기 시험과 체력 검사에서 여러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특히 체력 검사는 통과 될 때까지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이리공고는 학생이 부사관 동아리를 선택하면 부사관 임용이 확실해지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은성 기자



이리공업고등학교는 최근 해병대와 학·군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한편 부사관 임용은 9급 공무원으로 부사관 임용 후 부사관 경력을 바탕으로 소방관 시험 경력자에 도전할 수 있다. 김기욱 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이리공고에서는 부사관을 통한 9급 공무원의 확실한 길을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이며 폭 넓은 진로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